

원빈 스님은 ... 천안에서 출생해 2005년 밸런타인데이에 해인사로 출가했다. 해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후, 죽림정사에서 불심도문 스님을 시봉했다. 2006년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해, 2년 연속 설법대회에서 우승했다. 2008년 시작된 승가대 수행모임 '행복 명상'에 동참해 민일수행정진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군중장교로 임관해 호국백성사, 호국군사사 호국관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1년 독서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를 조직해 군인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렸다.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무의식적으로 불교를 택한 청년들이나, 종교가 없는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면 불교를 배우고 싶어해요. 문제는 설법 시에 너무 어렵고 이상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점이지요.”

원빈 스님은 2011년 독서 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를 조직했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책을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불교를 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행군스는 매달 장병들에게 책 100권을 전달했다. 참석자들도 점차 늘어 2012년에는 300여 장병들이 행군스에 참여했다. 스님은 보통 틈나한 스님의 책 '화'를 선물하지만 불교신자가 아닌 장병에게겐 제랄드 G 잼플스키의 '사랑수업'을,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는 티머시 페리스의 '4시간'을 선물하기도 했다.

군법사 시절 스님은 법명 '원빈'과 잘 어울리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바로 '부처핸섬'이다. 강의가 무료해지거나 말문이 막히면 '풋 유어 핸드스 업(Put your hands up · 양손을 올리세요)'이라고 외치다보니 장병들이 스님을 '부처핸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불교를 원한다

“젊은 군 장병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행복'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지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이메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군법사 시절 일반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시작했다. 페이스북,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까지 한마디로 요즘 나온 SNS는 모두 섭렵했다.

“팟캐스트 종교채널 900여 개 중 90%가 교회 채널이에요. 웬만한 대형교회는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팟방(순위 프로그램)을 보면 1위는 법륜 스님 채널입니다.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채널이 10개도 안되지만 모두 상위권이에요. 이것을 보면 대중들이 스님들, 그리고 불교에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빈 스님이 만든 팟캐스트 채널은 이를 만에 100위권 순위에 들었다.

“불교계는 아직까지 언론홍보 전략이 많지 않아 오히려 파급효과가 큼니다. 교회는 너무 노출이 많아요.” 스님은 이런 흐름이 불교에는 호기이자 위기라고 진단했다.

“최근의 흐름은 성철-법정 스님 이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힐링, 웰빙, 또 풀링 등 현대화된 부분이 받는 것입니다. 한국불교 전통과 이러한 현대화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불교의 정체성으로 끌어오느냐가 과제예요. 이러한 것들을 불교가 끌어안지 못하면 사회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기현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위기죠.”

전법 연구를 통해 광장에 목소리 내다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를 다니며 SNS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다. 그 논문으로 불광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제2회 전법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법 교화는 설법이 핵심입니다. 설법은 정보전달이라는 관점에서 논문을 썼어요. 정보 전달의 원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정보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둘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셋째는 감동과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스님은 이런 지론과 스님의 일상을 담은 내용을 책으로 내기도 했다. <같은하루 다른행복>이 그 것이다. 책을 내게 된 계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다.

“책을 내는 것을 지도교수님에게 추천을 받고 원고를 출판사에 다 보냈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이력이 없으니 아무데도 연락이 없더군요. 어느날 한 출판사에서 페이스북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있는 곳을 알려드리니 회사 대표님이 그날 저녁에 달려오셨습니다. 책에서는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만일기도 세번하면 금생 마무리

현재 스님은 주석처가 없이 중앙승가대 연구소인 일산 '행복한절'과 중앙승가대학교를 오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포교활동은 오프라인과 결합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입문자 문턱까지 이끌 수 있지만 높은 수준까지 이끌기는 힘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어디로 오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오프라인 기반이 있어야 온라인에서 만난 인연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빈 스님은 다시 해인사에 적을 두고 12월 중순 미안마로 출국할 예정이다. 3월까지 미안마 웨우민 센터에서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승가대 2학년 때부터 선정에 대한 열망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행자는 기본으로 선정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또 군대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느라 가행정진을 못했는데 방학기간만이라도 내려놓고 정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원빈 스님은 2008년부터 만일기도에 입재했다. 스님은 2008년 시작된 승가대 수행모임 '행복명상'에 동참해 민일수행정진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출가하는 스님들과 출발점이 조금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불교 수행, 포교활동을 경험하고 해제 때는 대중들과 또 어울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들과 함께 찬불가 부르며 포교활동을 할 것만 같습니다. 그 원을 갖고서 만일기도 세 번을 하면 한 평생이 가지 않을까요?”

일산 행복한절=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전법일기

#### 갠지스강에서의 깨달음

갠지스강으로 향하였다. 2명씩 각각 10대의 릉사에 올랐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리고 거리는 힌두교 의식을 하러 강으로 가는 사람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뒤엉켜 빠른 물결을 이룬다. 가깝게 도로에 소들도 나타나고, 자전거와 자동차들이 엉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아슬아슬하게 비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내가 탄 릉사를 끄는 노인은 많이 말았다.

그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안전을 체크하고는 씩씩 웃는다. 미안하다. 내가 깡마른 노인이 끄는 릉사를 타다니... 그래도 그는 행복해 보인다. 복잡한 시내를 요리조리 피하며 한참을 열심히 가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릉사를 멈추고 그가 뒤편으로 달려가서 주워 온 것은 릉사의 안장이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 진다. 완전히 부러??하지만 속상해 하면서 다시 패달을 밟는다. 안장이 없으니 앉지도 못하고 패달 위에 발을 올린 채 서서 밟는다.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힌두의식 아르파루자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 밤의 갠지스는 화려한 축제의 주인공같이 화려한 웃고 화려한 미소로 손님을 보낸다. 강가의 고대 건물들을 뒤로 하고 다시 같은 릉사에 올라 호월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받은 돈은 겨우 1달러.

다음날 새벽 아침, 갠지스강을 만나러 다시 갔다. 배에 올라 강을 건넜다. 어떤 젊은 인도청년이 한국말로 '방생'을 하라며 물고기들 그득한 배를 옆에 갔다 맨다. 누구는 돈을 주고 물고기를 놓아 주고 누구는 그 강에서 다시 잡고....

여하튼, 우리 일행은 모두 한 양동이에 2불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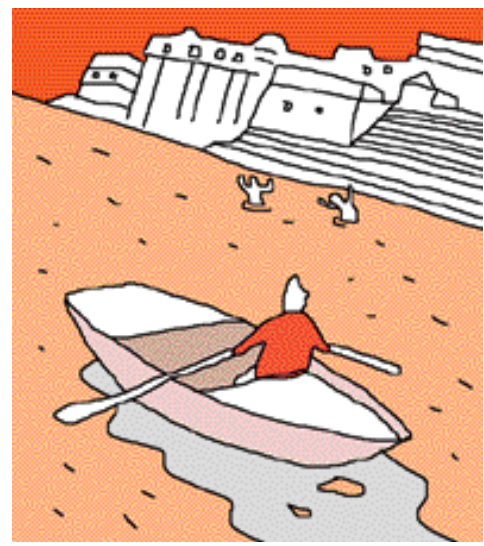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고 사서 각자 강에 놓아 준다. 금세 부자가 된 물고기 파는 청년은 신이 났다.

강을 건너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강변을 걸었다. 2500여년 전 이 땅을 걸으셨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부처님이 호흡했던 공기를 마시며 부처님을 느낀다. 갠지스강의 모래를 손끝으로 만지니 부처님을 만지는 듯 한 것은 왜일까?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흐르는 붓다의 외침을 듣는다. 불을 차갑게 스치는 바람 속에서 전해오는 붓다의 향기를 맡는다. 지금 이 순간 붓다가 내안에 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모든 감각을 멈추고 붓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눈가가 축축해진다. 어느새 시뻘건 해가 지평선으로 쏙는다. 2500년전 붓다가 이곳에서 보던 해

## 슬퍼말라,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와 지금의 내가 보는 해는 같은가? 다른가? 나의 상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붉은 해는 말이 없다.

갠지스강은 또한 제일 큰 규모의 화장터로 유명하다. 우리가 화장터 가까이 갔다. 인도사람들은 갠지스강에 몸을 씻게 되면 죄와 허물이 모두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강에서 화장을 하고 그 재가 강가에 뿌려지면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4명의 사람들이 시신을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올려 '람람싸드야헤' (라마신은 알고 계신다)라고 외치면서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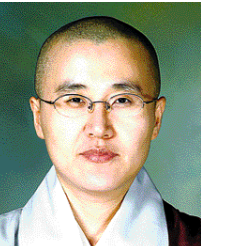
이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노래는 슬프기 보다는 생과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노래 같다. 작년 서른 살 아이들을 갑자기 잃은 한 보살님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일년 전에는 병명이 있었던 아들, 1년이 지난 지금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화장 후 뼈 무더기로 만난 아들. 무엇이 그녀의 아들인가? 아들을 살릴 희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희망을 갖고 싶었던 그 시간들, 커다란 슬픔은 그녀만의 소유물인듯 갠지스강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고요히 흐른다.

한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목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화장한 시신을 버린다. 모두가 성스러운 어머니 갠지스의 품에 안긴다.

이렇듯 갠지스는 새로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삶과 죽음이 들어 아님을 내뿜어 속삭인다. 삶을 너무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언젠가는 강물처럼 지나 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우 스님(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증 안내 ◆
-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법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6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증 후 발급증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경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회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해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nk.net

###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호소리, 질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 중노릇하는법, 상주관공, 구병시식등, 천도제,
- 전문 2년 - 시왕각매, 예수제, 영산제, 수록제,
-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